

한숨

지옥철이라고 불릴 만큼 붐비는 출근시간 지하철을 탔는데 옆에 앉은 승객이 쉬지 않고 한숨을 내뿜는다. 잊을만하면 다시 들려오는 한숨 소리에 최대한 결눈질로 그를 보니 축 처진 어깨에 두 눈은 꼭 감고 있다. 마스크 착용으로 예상하기 쉽지만 대중 30대 초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데... 집안에 우환이 있나 무슨 큰일을 앞두고 있나 실연이라도 당한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. 이게 모두 그 한숨 때문이다.

아무 말도 안 했고 그저 숨일 뿐인데 한숨은 많은 것은 내재하고 있다. 별생각 없이 내뿜은 의미 없는 숨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생판 모르는 옆 사람마저 신경 쓰이게 하니 같이 사는 가족의 한숨은 오죽하랴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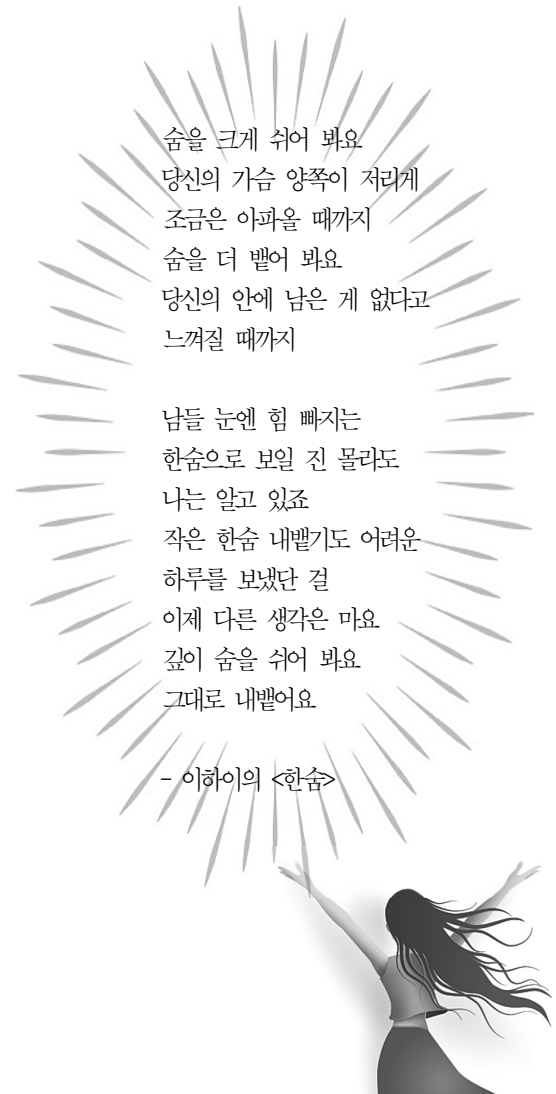
엄마가 내쉬던 한숨을 기억한다. 어릴 때는 엄마가 말없이 한숨을 쉬면 야단을 치거나 소리를 지를 때보다 더 불안하고 무서워 내 작은 가슴이 콩닥거렸다. 내가 어른이 되고 나니 엄마의 한숨 소리가 훨씬 더 무겁게 들린다. 그 한숨의 원인이 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까... 내가 첫째 출산 후 복직을 하고 친정엄마가 3년 정도 아이를 돌봐주셨는데 퇴근하고 집에 가면 엄마는 쉴 새 없이 한숨을 쉬었다. 땅이 꺼질 듯한 엄마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올 때면 나는 극심한 죄책감과 아이를 맡겨야 하는 이상황이 원망스러워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.

나도 심하다 싶을 정도 폭폭 한숨을 내쉬어 본 적이 있다.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한숨, 앉았다가 일

어나는데도 한숨, 빨래를 개면서도 한숨, 음식을 씹다 말고 한숨, 저물어가는 석양을 보면서도 한숨... 사는 게 막막하다 못해 지금이 순간을 버티는 것조차 힘에 겨웠던 날들이었다. 이 한숨이라는 게 크게 한 번 내쉬고 툭툭 털고 일어나면 괜찮은데 쉴 새 없이 터져 나오는 신음 같은 한숨이 제일 고약하다. 이걸 거의 습관에 가까워서 거의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튀어나오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도 어느덧 한숨을 쉬게 만드는 강한 전염성까지 갖고 있다.

하지만 살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숨쉬기가 버겁고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은 순간들이 불쑥 불쑥 찾아온다. 그럴 때 나는 의식적으로 큰 숨을 쉬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한숨인지 큰 숨인지 그 기준은 애매모호하다. 아무튼 폐가 부풀어 오르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코로 산소를 최대한 들이마시고 “후” 하고 크게 숨을 내뿜는 것을 몇 번 반복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조금씩 숨이 쉬어진다.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몸도 알아서 반응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다.

이 세상에는 각기 다른 처지에서 내쉬는 한숨들이 있다. 원망, 실망, 고단함, 짜증, 분노, 안타까움, 난감함, 불편함의 표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삶을 뒤흔드는 처절한 고통 속의 신음, 또 누군가에게는 슬픔에 절규하는 몸부림일 수도 있다.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가끔은 참지 말고 내뿜을 필요가 있다. 한숨이 뭐 대단한 치료책이나 해결책이 되어줄 순 없지만 조금이나마 답답한 가슴에 숨통을 트게 해 준다면 그대로라도 괜찮을 것이다.



숨을 크게 쉬어 봐요
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
조금은 아파올 때까지
숨을 더 뿜어 봐요
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
느껴질 때까지

남들 눈엔 힘 빠지는
한숨으로 보일 진 몰라도
나는 알고 있죠
작은 한숨 내뿜기도 어려운
하루를 보냈던 걸
이제 다른 생각은 마요
깊이 숨을 쉬어 봐요
그대로 내뿜어요

- 이하이의 <한숨>

*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. '나는야 1.5세 아줌마'는 '재미교포1.5세 아줌마'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. <편집자 주>



“정상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.”
아이비가 하면 틀림없습니다.

“ 지금이 집을 파실 기회입니다.”

탑에이전트 아이비와 리스팅을 하시면 아래의 혜택이 함께 덤으로 옵니다

- 01 무료 인스펙션 Free Inspection
- 02 무료 집수리 Free Handyman Work
- 03 무료 집단장 Free Staging
- 04 무료 감정 Free Appraisal
- 05 무료 보험 Free Home Warranty
- 06 무료 창고 제공 Free Storage
- 07 무료 터마이트 검사 Free Termite Inspection
- 08 후불제 페인트 Paint(pay when close escrow)

최근 판매한 매물들

780 W Rossllyn AVE FUL	\$950,000
8062 Ainsworth LN La Palma	\$1,350,000
5320 Buck Hill AVE Buena Park	\$2,000,000
11762 Lakeland RD Norwalk	\$740,000
120 Gemstone Irvine	\$1,385,000
11433 Excelsior DR #A NorWalk	\$600,000
5409 Arrowhead AVE Buena Park	\$900,000
988 Glendora Dr. Oceanside 92057	\$825,000
1661 Interlachen M11-286B Seal Beach	\$265,000
4559 Toledo WAY Buena Park	\$581,000

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”

3110 Cochise WAY #102 Fullerton	\$473,000
7770 Youngdale WAY #D Stanton	\$450,000
5087 Argyle DR Buena Park	\$500,000
1001 W Lambert RD #169 La Habra	\$210,000
629 Drake AVE Fullerton	\$893,000
6045 Barry DR Cypress	\$960,000
3143 W Lincoln AVE Anaheim	\$659,000
596 Escenico Lake Forest	\$1,085,000
2615 Tuscany WAY Fullerton	\$1,607,000
6495 Saipan ST Cypress	\$1,002,540

**주택/ 상가/ 사업체/ 투자매물 전문
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
꼭 필요합니다**

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.
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

※ 새집 분양,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,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.
※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,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.



아이비
VICE PRESIDENT
Member of NAR, CAR, PWR
CalDRE#: 02086695

LEAH IVY CHANG REALTOR
LeahChangRealty@gmail.com

714.904.1202

Buena Park: 6561 Beach blvd
Irvine: 8 Corporate Park #220